

# 經營戰略으로서의 特許情報活動

<日本> 日產自動車株式會社  
特許部 主任 IEDA MINORU

## 1. 序 言

同社の主要 製造販賣製品으로서의 自動車는 최근 技術革新의 큰 물결 속에 있는 商品이다.

고무의 타이어를 갖고, 內燃機關에 의해 動力을 얻고 핸들을 잡고 路面을 생각내키는대로 달린다는 基本機能이야말로 1908年 世界에 처음으로 量産된 T型 포드도 다를바가 없으나 機構, 性能, 製造法에 있어서 現在의 自動車는 커다란 變貌를 가져왔다.

日本에 있어서 1955年代는 모터라이제이션에 수반한 量産技術이 飛躍적으로 발전하였고 1960年代에는 完全, 公害對策이라는 社會的 要求에의 對應技術의 進歩가 있었고, 70年代에 들어와서는 省에너지技術이나 快適化를 위한 廣範圍한 技術이 新材料나 일렉트로닉스技術과의 結合에 의해 革新的 變貌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宿命적으로 80年代는 단순한 동적의 技術의 延長線상에 있다고는 보지 않으나 豫側조차 곤란한 狀況이다.

이러한 技術革新의 大波高에 밀려날 경우 企業의 存立에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조차 보인다. 同社は 이와 같은 環境 속에서 技術開發을 企業經營의 重點施策으로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同社の 特許部門이 獨立된 섹션으로서 活動을 시작한 것은 比較的 근년의 일이며 年度로는 1967年경이 된다.

發足 當時부터 잠시동안은 本社(東京)에 그 機能이 集中되어 있었으나 1978년에 요코스카의

中央研究所에 分室을 만들어 特許部員의 一部가 常駐하는 體制를 갖추었다.

1982년에는 아즈키에 新設된 테크니칼센터도 一部가 상주하는 體制를 갖추에 따라 技術部門에 보다 接近된 特許管理體制를 구축하고 있다.

特許資料도 部 發足 당시 社内外에서 밀어닥친 資料가 基礎가 되었으나 그후 公開制度의 발족, 出願件數의 增大에 의한 特許資料의 증가가 顯著하고 그에 對應하는 각종 方案을 시도한 결과 현재는 分類別, 出願別의 1次資料(公報類)를 기초로해서 컴퓨터와 마이크로필름을 組合한 調査시스템을 구성해서 對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特許資料나 調査用機器數는 上記 3개 地域에 각각 配置해서 地理적으로 分散돼 있는 技術部署의 特許調査活動에 대한 負擔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特許情報活動

— 主役은 技術部門 —

技術開發活動에 있어서 特許情報가 해내는 역할의 重要性을 여기에 再言할 필요조차 없으나 技術開發活動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特許情報를 活用하는데 結付시키느냐에 대해서는 企業 각각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 각종 어프로치가 나오리라고 생각된다.

同社에 있어서는 特許活動의 主體는 本來技術部門에 있다는 認識에서 特許情報活動에 있어서도 社内の 各技術部門이 主體性을 가지고 特許情報를 入手하고, 調査하고 活用に 연결시킬 수

있도록 體制를 갖추어 나가는데 目標을 두고 있으며 特許部는 이를 위해 다음의 支援活動에 力點을 두고 있다.

同社의 特許管理體制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別圖와 같다.

特許管理의 實質的 推進役은 各技術部門의 課單位에 配置된 200名 가까운 「特許管理主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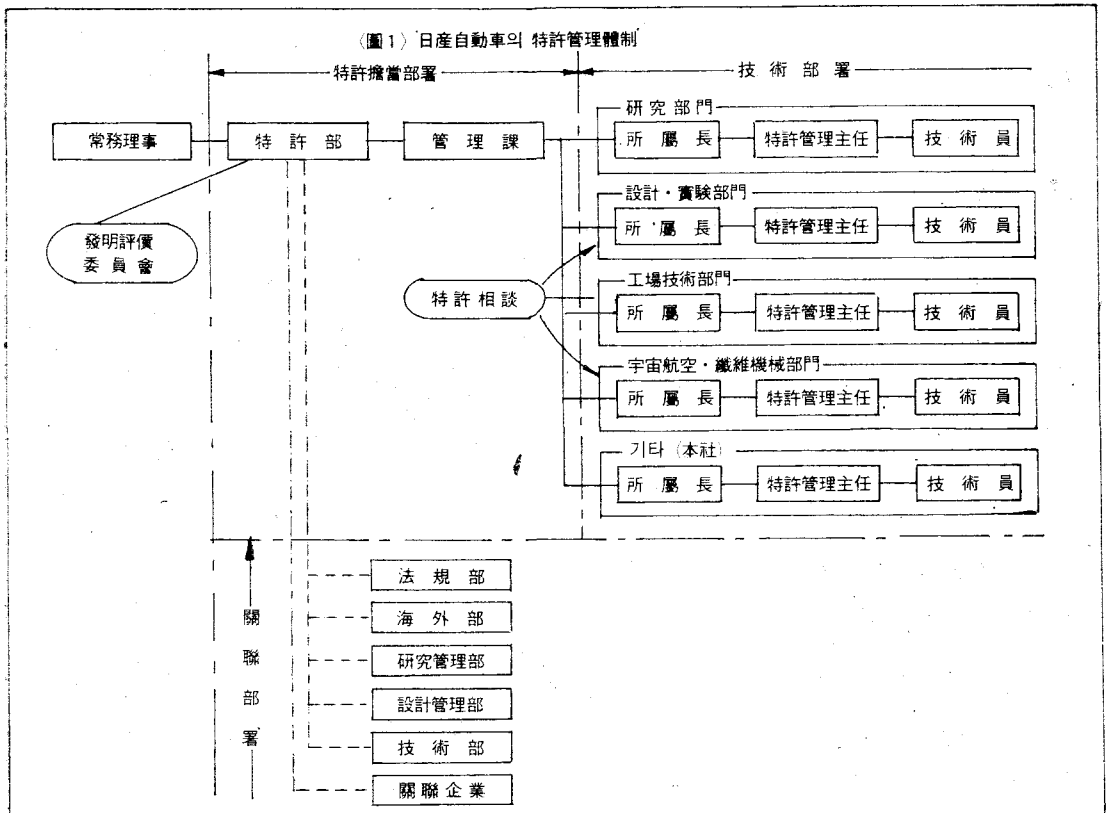
特許管理主任은 職制上的 職位는 아니지만 各技術部門에 所屬해서 特許部와 各技術員 사이의 굽직한 파이프 역할을 하며 自己 部署에 있어서 特許出願管理, 特許情報管理의 核心役割을 한다. 따라서 技術開發面, 나아가서는 經營戰略에 特許情報를 効果적으로 活用할 수 있는냐의 與否는 技術部門에 있어서 特許管理體制의 充實이 重要하며 技術部門에 있어 職制 — 特許管理主任 — 一 技術員의 全體가 特許的 資質을 몸에 배도록 하

는 것이 重要하다.

이 때문에 特許部에서는 特許研修活動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新入社員層, 中堅層, 特許管理主任, 部課長을 각각 對象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준비하여 特許部 業務의 큰 기동으로써의 힘을 쏟고 있다.

특히 特許管理主任을 위한 研修에서는 최근 컴퓨터에 의한 情報檢索方法이라든가 Patent Map의 作成, 實習 등 情報活用까지의 內容을 포함하는 高度化가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特許相談制度는 特許部員이 技術部門에 定期的으로 찾아가 特許에 관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제도로서 技術部門에서는 出願에 관계되는 相談 이외에 特許資料의 蒐集調査나 抵觸檢討 등 特許管理 全般에 걸친 疑問에 즉시 응답하여 好評을 받고 있다.



### 3. 特許部에서의 特許情報管理

#### 1. 特許調査資料의 整備

機械分野에 있어서 特許情報調査에는 大量의 公報類를 圖面을 보면서 파악하여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現狀에서는 1次資料(特許公報, 全文明細書 따위)를 分類別로 管理, 製本해서 蓄積하고 있다.

分類別 資料의 整理狀態는 同社로서는 그 技術分野의 重要度, 調査頻度 등으로 判斷해서 A, B, C의 3개 랭크로 나누어 管理하고 있다.

A 랭크(車輛, 內燃機關, 機械要素 등 重要技術分野)에 대해서는 特許, 實用新案의 公開, 公告公報 自體를 分類別로 整理해서 製本하고 있다.

B 랭크(重要技術分野의 周邊技術이나 調査頻度の 比較的 낮은 技術分野)에 대해서는 公開는 圖面付 抄錄을, 公告는 公報를 베이스로 해서 一部 마이크로 필름形態도 포함해서 정비하고 있다.

C 랭크(同社에 관계가 적은 技術分野)에 대해서는 公開, 公告 모두 區分別合本公報 그대로 保有하며 公開는 一定期間 經過 후 順次로 마이크로 필름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分類의 整理形態는 1979年 이전분은 日本特許分類(JPC), 1980年 이후분은 國際特許分類(IPC)에 따라 갖추어져 있다.

出願人을 限定한 調査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內外의 關聯되는 主要 出願人 약 50社에 대해 出願人別의 公報集을 만들고 있다. 1981年 이전에 대해서는 公開, 公告 모두 作成하였으나 1982年 이후의 公告는 거의 100% 公開畢인 가답에 重復 資料의 削減 뜻도 있고 해서 원래는 公開資料만을 作成하고 있다.

企業動向調査에 있어서는 公開資料는 거의 出願日順으로 時系列的으로 出現하므로 網羅性이란 點에서 뿐만 아니라 利用面에서도 상당히 便利하다.

外國의 特許資料는 美國, 英國, 西獨, 프랑스,

PCT, 유럽 特許에 대해 公報나 抄錄을 계속적으로 購入하고 있다. 이 가운데 美國 特許에 대해서는 오피셜 가제트 이외에 重要技術分野에 대해서는 美國分類에서 細分類化한 明細書에 의한 調査資料를 別途 作成하고 있다. 또한 약 30社의 出願人別 資料를 明細書 또는 오피셜 가제트의 抄錄에 의해 作成하고 있다.

英國 特許에 대해서는 從來부터 어브리지먼트(公告抄錄)을 英國特許分類의 大分類(DIVISION) 單位로 製本하였으나 1979年 이후 新法에 의한 公開抄錄이 發行되게 됨에 따라 公開資料에 대해서는 中分類(HEADING) 單位로 抄錄의 製本을 作成하고 있다.

페이퍼 資料를 베이스로 하는 매뉴얼 調査는 基本的으로 技術部署가 實施하나 調査資料는 特許部に 整備되어 있는 이같은 資料를 사용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技術分野에 따라서는 特許廳이나 發明協會 등 公共 閱覽所를 利用하기도 하며 또 外國의 特許調査에 대해서는 大阪夕陽圖書館(關西文獻센터)를 利用하기도 한다.

한편 新規로 發行되는 情報의 감시는 技術部署가 公報나 抄錄誌를 分類指定이나 區分指定해서 直接 받아들여 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公告에 대해서는 特許部の 判斷에 의해 매뉴얼 SDI도 並行해서 實施하고 있다.

이것은 要 異議申請에 관해서 더블체크體制를 갖추으로써 他社權利로부터 自社製品을 지키는데 完璧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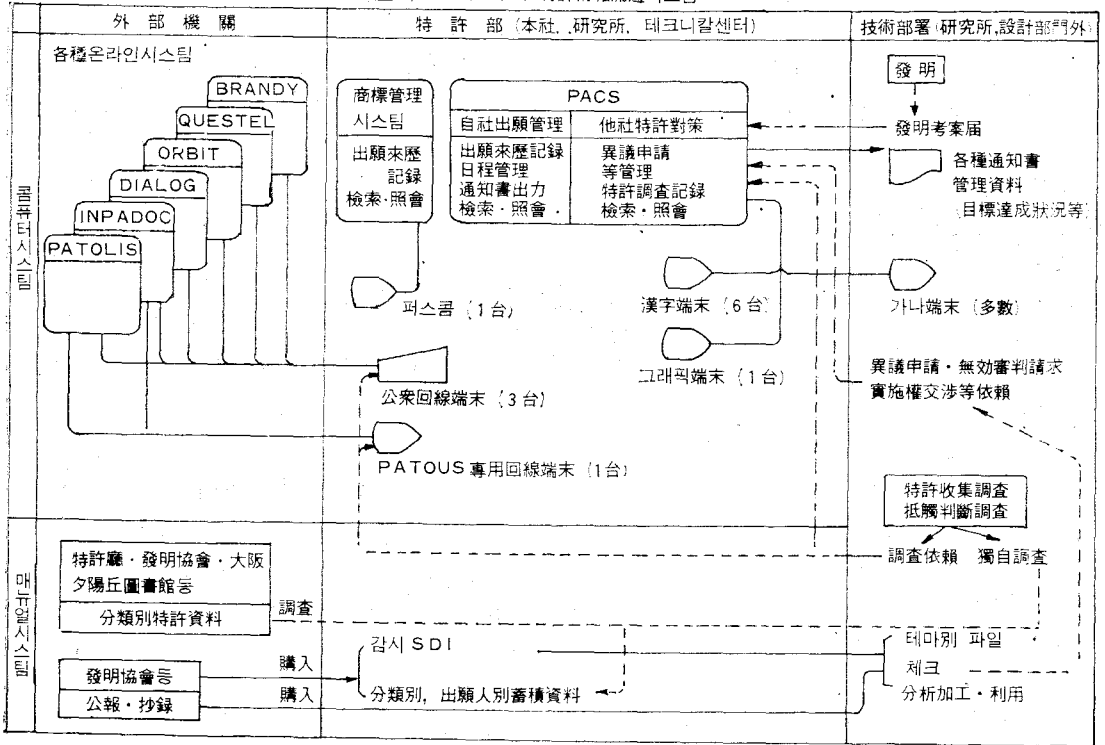
#### 2) 情報檢索機械化에 着手

基本資料는 公報를 기초로 한 페이퍼 資料에 두고 있으나 최근 機械檢索, 특히 컴퓨터를 利用한 On-Line檢索시스템의 普及, 發達이 두드러져 情報 入手面에서 페이퍼資料와의 補完機能을 充分히 이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情報시스템의 機械化에 특히 힘을 들이고 있으며 內制시스템의 開發, 市販시스템의 導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2)는 同社에 있어서 特許情報流通시스템의 概要를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시스템 가운데

〈圖2〉日産自動車の 特許情報流通시스템



네 外部시스템의 PATOUS, INPADOC은 1980年 9월에 導入, BRANDY는 1982年 4月, DIALOG은 同年 7月, ORBIT는 1983年 1月, QUESTEL은 7월에 各自 導入한 것이다.

各 시스템은 각기 다른 코멘드 機能을 가지며 또 類似한 데이터 베이스 間에서도 微妙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이어 導入에 서두른 各 시스템은 각기의 特徵을 살려서 使用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 쪽의 資質向上이 반드시 따라야 하게 돼 있다.

檢索者의 努力을 덜어주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서 端末機의 인텔리센트화나 共通 코멘드로부터의 自動變換 소프트웨어의 開發 마위가 今後의 課題로 된 것이다.

한편 社內 시스템의 PACS(Patent Administration Control System)는 1980年 11월에 同社의 特許·實用新案出願管理시스템으로써 發明品 接受로부터 出願權利 消滅까지 龐大한 事務處理의 效率化와 特許戰略의 展開를 위한 情報源으

로써 獨自로 開發한 것이다.

當初 가나시스템으로 시작하였으나 臺帳이나 記錄通知書類의 全面的인 컴퓨터 處理化를 위해 1981年 10월에 漢字시스템으로 移行하였다.

그리고 PACS의 서브시스템으로서 1982年 11月부터 他社 特許對策시스템을 運用하고 있다. 이것은 商品開發 過程에서 實施한 各種 特許調査의 經過나 結果, 他社 出願에 대한 情報提供, 異議申請, 無効審判請求, 實施權 交涉 등의 경과나 結果 마위를 綜合的으로 管理하는 것이다.

그런데 PACS는 테크니칼센터에 設置하고 있는 大型 컴퓨터 IBM 3081을 主管으로 해서 運用되고 있으며 研究, 開發部門에 배치되어 있는 200臺가 넘는 端末機를 통해서 技術員들이 直接 檢索, 照會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PACS로부터 出力되는 各種 管理資料 가운데 그래픽表示가 效果的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픽端末로부터 ON-LINE形式으로 圖形 出力되게 돼 있으며, 發明提案의 目標管理나 業

務處理의 工程管理, 出願動向分析 등에 活用되고 있다.

### 4. 特許情報의 活用

技術開發活動 나아가서는 企業經營의 戰略展開에 있어서 特許情報의 有用性, 重要性이 高潮되고 있다.

그러나 同社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方向에 關係해서 결코 滿足할 만한 狀態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特許調査는 特許部에서 行한다는 部發足 當初의 생각을 1973년에 特許管理規定을 改正하고 技術開發部署의 義務도 한데 있으며 이후 잠시동안은 技術部署에서의 意識改革이 따라서 自主的인 特許調査에 착수하는 것이 不充分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技術部門 各層에 대한 特許研修活動의 成果로서 特許管理에의 착수가 점차로 積極化를 띄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特許面에서 缺陷을 가진 商品開發은 그 自體缺陷商品이라는 認識이 定着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一般的으로 情報의 價値라는 것은 絶對的인 것이 아니며 주는 側과 받는 側에 커다란 差異가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特許情報에 關係해서도 特許部가 一方으로 提供한 情報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찾은 情報쪽이 훨씬 더 寄與하는 바가 많기 마련이다.

이런 意味에서 特許部로서는 技術部門의 要求에 따르기 위해 施案을 여러 面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Patent-Review와 Patent-Map

Patent Review는 新車開發이나 새로운 유니트(部品)의 개발에 있어서 개발과정의 단계적 發明의 스크린 役割을 하고 他社 出願과의 關係를 分明히 해서 開發方向을 定하고 또 抵觸事件을 未然에 防止하는 目的으로 技術部門이 主體가 되어 實施하고 있다. 이때 特許部員도 함께 참여하여 特許局에서의 어드바이스를 하게 된다.

Patent Review의 手段중 한가지로서 Patent

Map의 方法은 分明히 有効하며 주요한 開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豊富하게 작성하게 된다.

이것도 特許部가 獨自的으로 作成해서 提供하더라도 活用되는 경우는 별로 적으며 目的이 明確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Map의 디자인의 選擇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蒐集方法이 檢討되기도 한다.

따라서 一聯의 作業의 대부분은 그 필요성을 지니는 技術部門의 人的 負擔으로 推進되는 것이 効率的이며 特許部는 Patent Map 方法의 指導를 담당하지만 個個의 테마에 關係해서 具體的 作業에 임해서는 基礎 데이터의 提供段階에서 協力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 複合情報化에 의한 動向分析

特許情報만을 取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情報, 新聞情報, 學會情報 등의 多樣한 情報 가운데 特許를 보았을 때 새로운 情報가 發見되는 것이다. 企業動向이나 技術動向을 分析할 경우 위와 같은 方法의 適用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同社에 있어서는 技術部門의 一部에 있어서 이러한 方法을 짜 넣은 動向調査를 實施하고 있으며 經營者層에의 特許情報의 提供에 寄與하고 있다.

이와같은 複合的인 特許情報의 活用方法은 經營情報化를 꾀하는데서 앞으로 重要的 方法이 될 것이다.

### 5. 結 論

정보는 살아 움직이는 動物과 같은 것이다. 時間과 더불어 價値가 變化한다. 받아들리는 사람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따라서 情報를 提供하는 側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要求에 합당한 情報를 適時에 提供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어 두는 것이 重要하다.

On Line System이 發達하고 特許情報가 世界속을 흘러다니고 있는 現在 이런 시스템을 살린 情報活動이 効果的으로 技術開發에 연결되었을 때 經營戰略上 優位를 차지하는 企業活動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活動은 部門을 超越한 全社의 連帶活動 속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